

# 속이고, 유혹하고, 중독시키는 디자인의 감춰진 이면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디자인 트랩

윤재영 지음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아니다 싶어 탈퇴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가입하기는 쉽지만 해지는 어려운 경우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은 단순한 핑수를 넘어선 고도의 전략과 연계돼 있다. 다시 말해 체계적으로 디자인화 된 전략의 일환이다. 해지 단계를 수십 단계로 만들어야 예 나갈 수 없게 하려는 의도다.

대체로 지금까지 디자인에서 다뤘던 심리학은 '착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면모 또한 적지 않다. 이른바 '다크패턴 디자인'이 그것이다. 이는 조작된 디자인, 속임수 설계, 다크 넷지 등과 연계된다.

윤재영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는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중독시키는 디자인 비밀이 있다고 한다. 즉 이런 것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수많은 구독 서비스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스스로 선택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디자인으로 위장한 미끼와



함정들로 구독자를 유혹하는데 말이다. 윤 교수의 책 '디자인 트랩'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함정을 소개한다. 행동 심리학을 토대로 한 원리와 설계 방식이 언급돼 있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윤 교수는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UX 디자인 리서처로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는 사용자를 유인하고 현혹하는 UX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1년 한국디자인학회와 한국 HCI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책은 끊임없이 알람을 보내고 중독을 보내는 이른바 '나쁜 디자인'의 실체를 다룬다. 모바일이나 구독경제, 메타버스와 같은 플랫폼이나 미래 산업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자인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의 행동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전략도 증대된다.

저자는 사용자를 기만하는 디자인을 일컬어 '디자인 트랩'이라고 규정한다. 고도로 설계된 마케팅 전략을 모르는 사용자는 고스란히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영화 '미나리' 중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숨어 있는 것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란다"는 말이 그것이다. 정교하고 기만적인 술책이 샅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의미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남긴 제품 후기가 알고 보니 조작된 광고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SNS 서비스는 우리가 중독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

였으며 아무 의심 없이 눌렀던 클릭이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었을 수도 있다. 어떤 게 진실된 것이고 어떤 게 조작된 것일까."

저자는 디자인 트랩의 원리를 '미끼와 매운 연기'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가입 시 '한 달 무료 이벤트'와 같은 문구를 내세우지만 서비스 해지 때 '반복적으로 혜택 보여주기'로 유인한다. 싫어할 만한 것으로 몰아 유인하는 전략인 매운 연기로는 '깨알 같은 글자의 긴 약관' (서비스 가입 시)과 '꼬아 놓은 해지 경로' (서비스 해지 시)를 들 수 있다.

저자는 '중독'에 빠뜨리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SNS 디자인은 많은 부분이 슬롯머신 디자인과 흡사하는 경향이다. 이를 테면 흔히 언급되는 '간헐적 보상' 외에도 쉽고 단순 반복되는 동작(무한 스크롤, 무한 스와이프), 몰입형 UI, 숏폼 영상, 자동 플레이, 이탈 방지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슬롯머신과 SNS에 공통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책에는 편리함의 가면을 쓰고 있는 디자인 트랩의 양면성도 분석한다. 기능의 편리성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작용에 대해선 침묵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예가 '무한 스크롤'이다. 기존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반면 이용자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보상과 개선에 소극적인 것은 서비스 측에 돌아가는 다다익선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김정일 인지심리학자는 "가장 저적이지만 가장 쉽게 휘둘리는 우리를 위한 절묘한 책"이라고 평한다.

<김영사·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몰입형 UI에서는 액션 버튼을 엄지 영역에 배치해 효율성을 높인다. 녹색 영역이 엄지가 자연스럽게 닿는 부분이다. <김영사 제공>



## 여진

안보윤 지음

뮤지션 요조는 이 소설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여진"을 읽고 나서 나는 기꺼이 할말을 빼앗긴 채로 다만 슬픔을 쥐고 있었다. 두 소녀처럼, 누나처럼, 개처럼 나도 나의 슬픔을 꼭 쥐고 있다. 나의 희망도 또한 이 짙 권 주먹 안에 있을 것이다."

그만큼 소설에 대한 여운이 강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은 치유와 미래를 생각하게 한다. 안보윤 작가의 장편 '여진'은 상처를 딛고 회복하는 힘을 보여준다.

지난 2005년 장편 '악어떼가 나왔다'로 제10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안보윤 소설가는 장편 '오즈의 닥터'로 제1회 자음과모음상을, 단편 '완전한 사과'로 2021년 김승옥문학상 우수상을 받았다.

소설은 나와 나의 누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유년 시절 할머니 댁에 곧잘 놀러가 그곳에서 보냈다. 그런 어느 날 돌아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증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아랫집 남자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작가는 짙진 묘사와 잘 꿰어 맞은 이야기로 증간소음 문제, 아동학대 문제 등을 다룬다. 특히 작가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아픔 속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학대를 방조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우리들 주변에는 여전히 있을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장편은 존재의 아픔과 그림에도 상처를 끌어안고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펼쳐낸다.

<문학동네·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라르케토를 위하여

배홍배 지음

"흰 쌀밥과 김치를 먹고 신베르크를 듣는다. 그가 허공에 그리는 높은음자리표에 흰 손수건이 걸리고 연필은 흐느낀다. 너 무 빨리 잊어버린 조상의 눈물이 저항하는 미래의 언어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 쌀밥과 신 김치의 오랜 증인으로"

지난 2000년 '현대시'로 등단한 장흥 출신 배홍배 시인이 시집 '라르케토를 위하여'를 펴냈다. 시산맥 시혼시인선으로 출간된 이번 작품집에는 8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속삭이듯 말하듯 건네는 듯한 시들은 일정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느리지도 그렇다고 아주 빠르지도 않은 속삭임은 시인이 원래 지닌 천성인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라르케토는 원래 '악보에서, 라르그보다 조금 빠르고 밝게 연주하라는 말'을 뜻한다. 무슨 일을 하듯 쉬엄쉬엄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무언가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젠 끝내야 해 마주하는 방향으로/ 숨 쉬는 낮은 시간을/ 내일보다 월등한 오늘 밤/ 춤을 더 추어야겠지, 라르케토/ 사랑의 무지개가 저무는 옷소매로/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너를 잊는 밤은 아름답워/ 붉고 외로운 체벌인 태양을/ 증오하는 날들을 위하여/ 그녀가 외진 곳에서 눈부시게 온다..."

표제시 '라르케토를 위하여'는 이별을 고하려는 화자와 대상의 심리를 그려볼 수 있는 작품이다.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한 풍경은 상상의 여지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이별의 대상이 사람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한편 시집에는 해설이 따로 실리지 않고 시인의 산문이 있어 읽는 맛을 선사한다. '잊혀진 나무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풍경이 뒤섞인 삽화도 다가온다. <시산맥·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인류세의 인문학

캐럴린 머천트 지음, 우석영 옮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시대를 '홀로세(沖積世)'라고 부른다. '홀로세'는 대략 1만~1만20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때부터 상대적으로 기후 안정됐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파울 크뤼천과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는 지난 2000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류세(人類世)'라고 부르자 제안했다.

이들은 1784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을 인류세가 시작한 시점으로 보자고 말한다. 바로 제임스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연도다.

미국의 대표적인 에코페미니스트 철학자 과학자인 캐럴린 머천트는 기후 위기 속 문명 전환을 위한 개론서이자 선언서 성격의 책 '인류세의 인문학'을 발간했다.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 산업이 발전하면서 온실가스가 대폭 증가했고 그 결과로 이 시기는 빙하 핵심부에서 축적해 낸 자료에 따르면 일부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대기 내 축적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다.

저자는 인류세의 다양한 특성을 정리하고 과학기술의 역사, 문학, 예술, 철학, 종교, 윤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기후위기가 도래한 인류세라는 시대적 위기에 대응하는지 조망한다. 저자는 인류세가 도래한 것은 단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과학,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의 전환, 관점의 전환의 일어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류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환경 부담에 관한 새롭고 설득력 있는 인식을 과학, 기술, 인문학을 토대로 짚어보는 작품.

<동아시아·1만6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 1522-9341